

KARA

news
letter

News

2014 KARA 모터스포츠인의 밤 성료
양돈규, 2014 FIA 오피셜 어워드 수상
KARA, FIA Annual General Assembly 참석
KARA, 레이스위원회 조직 및 운영

Issues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2014 시즌의 키워드는?

Racing Team

2014 올해의 레이싱팀, 쏘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

Interview

2014 올해의 오피셜, 황덕창 기술위원장

Notice

연말 인사
KARA 공식 웹사이트 개편
오피셜 경기참가 횡수별 기념품 제공 안내

- ◎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서... 올 한해 자동차 경주 결산하는 화합의 장
- ◎ 올해의 드라이버, 올해의 레이싱팀, 올해의 오피셜 등 6개 부문 시상



2014년 국내 모터스포츠를 총결산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국내 최고 권위의 이번 시상식 '2014 KARA 모터스포츠인의 밤'은 12월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대한민국 재즈계를 대표하는 뮤지션들로 이루어진 정태호 밴드의 댄고 음악을 시작으로 그 막을 열었다.

올 해를 빛낸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모터스포츠 각 분야에 기여한 공로 자들에 대한 풍성한 시상도 이어졌다.

이번 시상식은 2014년 공인대회 성적 등 기준 점수와 주요 레이스 현장에서 가장 왕성한 취재 활동을 펼친 저널리스트 10인으로 구성된 수상자선정위원회의 투표 등으로 올 한해 국내 모터스포츠 공인 경기에서 활약한 정상급 드라이버와 레이싱팀, 프로모터 등 관계자들이 참여, 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트로피의 주인공을 가렸다.

특히 대상 격인 '올해의 드라이버상'의 경우, 팬들의 온라인 투표 점수까지 반영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드라이버상'은 약관의 신에 김재현(19, 쏘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에게 돌아갔다.

소속팀 쏘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역시 팀부문 최고상인 '올해의 레이싱팀상'을 받아, 창단 이후 최대의 겹경사를 맞이했다.

올해의 드라이버상을 수상한 김재현은 전체 7라운드 시리즈에서 5승을 독식하며 신인답지 않은 안정적 기량을 선보이며 제네시스쿠페 20 클래스 챔피언에 올랐다.

김재현의 수상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 넘는 반전이었다. 이번 수상은 국내 최고 종목인 슈퍼6000 챔피언 조항우는 물론, 팀 선배인 제네시스쿠페 10클래스 종합 우승자 최명길 등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이룬 성과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팬투표에서의 거둔 득표와, 현재 보다는 미래 가치에 무게를 둔 수상자선정위원단(기자단)의 민심이 깜짝 수상의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드라이버상에 이어 가장 비중 있는 시상 종목인 '올해의 기록상'은 지난 9~10월 개인 통산 100경기 출전의 대기록을 세운 김익수(42, CJ레이싱)와 장순호(39, 팀 106)가 공동 수상했다.

또 '올해의 오피셜상'의 주인공은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기술위원장인 황덕창(43)씨에게, '올해의 여성 드라이버상'은 권봄이(27, 서한퍼플모터스포츠)에게 돌아갔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출연하기도 한 권봄이는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벨로스터 터보전에 출전, 남성 드라이버들과의 경쟁에서 폴포지션 2회와 두 차례의 결승 4위를 기록하는 활약으로 이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자가 되었다.

KARA는 이날 모터스포츠 발전에 유익미한 족적을 남긴 개인 및 단체에게 주는 특별 공로상도 시상해, 올해 운명을 달리한 원로 모터스포츠인故 최광년씨와故 오영만씨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역시 원로인 백형두씨가 현장에 직접 참석해 같은 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영암 경기장의 운용 실적을 인정받은 전라남도, 지난 20년간 자동차경주 중계에 앞장선 MBC문화방송 등 모두 다섯 명(팀)에게 공로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KARA 변동식 협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2015년은 중장기적으로 모터스포츠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 영역에 힘을 쏟겠다"며 "레이스가 가진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4 KARA 모터스포츠인의 밤은 CJ헬로비전, CJ오쇼핑, CJ제일제당, 금호타이어, CGV, Rocky, Racro, FMK, SEP, AGWA, DOS MAS등이 후원했다.

■ 2014 KARA 모터스포츠인의 밤 주요 수상자

| 시상 종목 | 수상자 |
|--------------|------------------------------------|
| 올해의 드라이버상 | 김재현(쏠라이트인디고레이싱) |
| 올해의 레이싱팀상 | 쏠라이트인디고레이싱 |
| 올해의 기록상 | 김익수(CJ레이싱), 장순호(팀106) |
| 올해의 오피셜상 | 황덕창(슈퍼레이스 기술위원장) |
| 올해의 여성 드라이버상 | 권봄이(서한퍼플모터스포츠) |
| 특별상(공로상) | 故 최광년,故 오영만 백형두, 전라남도, MBC 스포츠국 |

양돈규, 2014 FIA 오피셜 어워드 수상

국내 오피셜 양돈규씨가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직접 수여하는 2014 오피셜 어워드(2014 FIA VOLUNTEERS & OFFICIALS AWARDS)를 수상했다.

이 상은 FIA가 모터스포츠의 숨은 공로자, 오피셜들을 위해 제정한 특별상으로, FIA가 국가 당 1개 단체에만 권리를 부여하는 각 국 ASN(국내는 KARA)으로 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전세계에서 모두 8명에게 시상했다.

양돈규씨는 8개 부문 중 '올해의 베스트 세이프티 오피셜' (Best Safety Officer of the Season)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씨는 지난 1999년 오피셜 활동을 시작해 2011년~2013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구난 부문 수석 오피셜로, 국내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안전위원장 등으로 꾸준히 활동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KARA의 안전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드라이버 안전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에 참여하는 등 안전 부문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3 KARA 모터스포츠 인의 밤 행사에서 올해의 오피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KARA는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국내 모터스포츠인들로부터 공개 추천을 받아 최종 3명(팀)의 후보자를 FIA에 전달했으며, 최종 수상자 결정은 전적으로 FIA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 ◎ FIA 수상자 공식 발표 ... 국내 첫 번째 국제 오피셜상 수상
- ◎ KARA, 회원들의 직접 의견 수렴을 통해 FIA에 후보자 추천
- ◎ 1999년부터 15년간 국내 모터스포츠 안전을 위한 노력 인정 받아



KARA, FIA Annual General Assembly 참석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지난 12월 1~5일 카타르 도하에서 2014년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세계 200여 FIA 회원 단체들의 한 해를 결산하는 자리로, 각 대륙별 모터스포츠 주관단체 회의,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WMSC) 등 분야별 위원회 회의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예년과 같이 총회 기간 중 FIA 챔피언십 경기들의 시상식 및 축하 행사 무대인 FIA 프라이즈 기빙 갈라(Prize-Giving Gala)가 열려, 전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FIA 총회는 FIA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 그리고 기타 국가에서 격년제로 번갈아 열린다. 지난해에는 파리에서, 올해는 카타르 도하가 그 무대가 되었다.

대한민국 모터스포츠를 대표하는 ASN인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역시 이사진과 국제부분 담당자가 파견되어 현지에서 열린 총회 및 아시아존 미팅 등에 참여했다.

FIA는 이번 총회에서 ASN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모터스포츠의발전 속도가 가파른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변동식 협회장)가 전문위원회 중 그 두 번째인 레이스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레이스 위원회는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서킷 온로드 레이스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검토하고 경기 발전을 위한 사항을 제안 및 자문하기 위해 조직된 위원회로, 서킷 레이스 육성 정책과 안전관련 제반사항의 연구 및 건의, 대회 개최 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 경기 관련 규정과 지침의 개정 및 변경 건의, 경기 일정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중재에 대한 기능을 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서킷 온로드 레이스 공인 프로모터가 지정한 대표자 각 1인(슈퍼레이스, KSF), 공인서킷 대표자 각 1인(KIC, 인제스피디움), 서킷 온로드 레이스 공인 대회에 참가하는 주요 공인 팀 감독 각 1인(CJ레이싱팀, 서한 퍼플모터스포츠), 서킷 온로드 공인레이스 KARA 파견 심사위원 각1인(홍영백, 김덕호 심사위원)과 KARA 김재호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2014년 2회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반적 내용 및 위원회 목적과 기능에 대한 세부내용, 위원장 선임과 2015년 위원회 회의 일정 및 자동차경기 국내 규정의 공인 경기등록에 대한 실제적인 협의가 이루어 졌다. 이에 2015년 레이스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되어 관련 이슈들에 대해 논의 한다.

KARA는 2015년 기준에 조직된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각종 전문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조직 및 활성화하여 전문 행정분야를 더욱 강화 시킬 방침이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해보다 많은 모터스포츠 이벤트가 펼쳐져 레이싱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국제자동차경주연맹(FIA)으로부터 자국내 모터스포츠 관장권(ASN)을 위임 받은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공인 대회는 연간 37회.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이 프로 레이싱 리그를 주도하며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마추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엑스타 슈퍼챌린지'가 신설되어 국내 모터스포츠 저변확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국제대회도 풍성해져, AFOS(Asian Festival of Speed)와 아시안 르망 시리즈(ALMS), 한중모터스포츠페스티벌 등이 2014년 우리 모터스포츠를 풍성하게 수놓았다.

여기에는 아우디 R8 LMS 컵, GT 아시아, 페라리 챌린지, 폭스바겐 포물러 마스터즈 등과 같은 서포트 레이스가 포함되어 보다 다채로운 레이싱 이벤트를 기대한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슈퍼레이스의 중국, 일본 진출로 인해 우리 모터스포츠 컨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진 한해 였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인천 송도에 FIA 그레이드4급 시가지 경기장이 들어서 수도권 관중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KARA는 12월17일 모터스포츠인의 밤 행사를 통해 '우리 모터스포츠의 국제 무대 진출', '도심 서킷 레이스 시대 개막', '저변 모터스포츠 활성화', '현대차의 WRC 진출', 등을 4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 엑스타 슈퍼챌린지

(주)슈퍼레이스가 운영하고, 금호타이어가 후원한 2014 엑스타 슈퍼챌린지는 아마추어 레이서들을 위한 스피드 페스티벌이다. 국내 모터스포츠 저변확대를 지향하는 엑스타 슈퍼챌린지는 한국자동차경주협회 공인 대회로, 3월 30일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시리즈 7전의 닳을 올렸다.

"국내 서킷에서 레이싱을 즐기는 인구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신력을 갖춘 아마추어 레이스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주최측은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엑스타 슈퍼챌린지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슈퍼레이스와 금호타이어는 출전자 무료 정비 서비스, 프로 드라이버들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안전하고 공정한 대회 운영 등을 추진해왔다. 이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국내외 여러 메이커의 차종이 경합을 벌인 이 대회를 통해 KARA 공인 드라이버가 2013년 보다 180명 이상 늘어났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레이싱 문화 만들기엔 역점을 두고 출범한 2014 엑스타 슈퍼챌린지에서는 염승훈(GT1), 전대은(GT2), 원상연(TT1), 남기연(TT2), 방재상(TT3), 박병준(TT4), 범정후(TT-D), 박상준(TT-M), 김대규(GDI) 등이 각 클래스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2014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4월 19~20일 강원도 태백 레이싱파크에서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8전이 열렸다. 국내 간판 자동차경주로 자리 잡은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아시아권 투어 레이싱의 기반을 다졌다'는 것.

사상 처음으로 일본과 중국 등 3개국, 5개 서킷을 순회하며 치른 시리즈 8전은 향후 다양한 루트로의 성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규 이벤트로 자리매김한 '나이트 레이싱'은 팬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국 투어링카 챔피언십(CTCC)과 함께 한 두 차례 교류전에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청사진 일부가 담겨 있다. 국내 모터스포츠 대중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아시아권으로의 진출을 알리려는 의지가 배어 있기 때문이다.

2014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을 빛낸 3개 클래스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벌어졌다. 특히 슈퍼레이스를 대표하는 슈퍼6000 시리즈는 개막전부터 최종 8전까지 챔피언 타이틀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접전의 연속이었다. 2014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6000 히어로는 아트라스BX 레이싱팀 조항우. 중국 상하이, 일본 오토폴리스, 그리고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3승을 기록한 조항우는 2008년에 이어 개인통산 두 번째로 슈퍼6000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2014 시즌의 키워드



올해 신설된 팀 챔피언십 최고 자리에는 CJ 레이싱이 올라갔다. 시리즈 중반까지 아트라스BX 레이싱팀과 라이벌 대결을 벌인 CJ 레이싱은 베테랑 듀오 김의수와 황진우의 역주 덕에 이 부문 초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GT 클래스에서는 쉐보레 레이싱, 팀106, CJ 레이싱의 삼파전이 뜨겁게 전개되었다. 시리즈 7전으로 순위를 가른 2014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GT 타이틀의 주인공은 쉐보레 레이싱 이재우. 초반 2전 동안에는 팀106 에이스 정연일에 다소 밀리는 듯했지만, 중반 3전을 연승으로 장식하며 2010년 이후 4년 만에 챔피언 트로피를 들었다.

45명의 드라이버들이 시리즈 7전에 출전한 슈퍼1600 클래스에서는 정승철, 신동훈, 양용혁이 종합 1~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엑스타 V720 크루즈 종목 1~3위는 김태호, 박규승, 유시원. 이형탁, 최광성, 하대석은 엑스타 V720 엑센트 클래스 종합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9개 기업이 후원하고 (주)이노션월드와이드가 운영을 맡은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은 7월 4~6일 개막전을 열고 2014 시리즈 6라운드 7전에 돌입했다. 개막전 장소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구역 일대에 마련된 스트리트 서킷. FIA 그레이드4 공인을 받은 1랩 2.5km 서킷에서 현대기아자동차 5개 클래스 원메이크 레이싱이 출발 테이프를 끊었다.

현대자동차가 주최한 '더 브릴리언트 모터 페스티벌'(The brilliant motor festival)과 함께 개최된 KSF 개막전은 13만 관중을 불러 모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MBC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 출연진들이 3개 클래스에 참가해 전에 없는 인기를 누렸다.

2014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은 제네시스쿠페 10/20(프로), 벨로스터 터보 마스터즈(세미 프로), 아반떼 챌린지 레이싱과 K3쿵 챌린지 레이싱(아마추어) 등 5개 클래스로 나눠 진행되었다.

KSF 정상, 제네시스쿠페 10 클래스 챔피언 타이틀은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 최명길이 차지했다. 3승을 포함해 7전 중 6전에서 포디엄에 올라간 최명길은 2011, 2012년에 이어 개인통산 세 번째로 제네시스쿠페 챔피언 타이틀을 가져갔다. 챔피언 드라이버를 배출한 쏠라이트 인디고는 쉐 팀 챔피언십 부문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1, 2전에서 연승을 거둔 김종겸(서한-퍼플모터스포츠)은 종합 2위로 2014 시리즈를 마무리 지었다. 올해 제네시스쿠페 10 드라이버 가운데 최다 코리아랩 진출 기록(5회)을 세운 김종겸은 지난해보다 한층 성숙한 레이싱을 펼쳤지만, 시리즈 중반 3전 우승 트로피를 독식한 최명길에 정상의 영예를 돌렸다. 제네시스쿠페 클래스 데뷔 2년 만에 우승컵을 손에 든 장현진(서한-퍼플모터스포츠)은 쏠라이트 인디고의 베테랑 오일기보다 앞선 점수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2014 KSF 시리즈에 신설된 제네시스쿠페 20 챔피언 타이틀은 김재현(쏘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의 품으로 들어갔다. 개막전부터 4연승을 거두면서 일찌감치 독주체제를 구축한 김재현은 전 경기 포디엄 피니시로 추격의 고비를 넘겨친 정희원(록타이트-HK)을 제치고 2년 연속(2013년 KSF 포르테쿵 챌린지 레이싱) 챔피언 트로피를 들었다.

세미 프로를 표방한 벨로스터 터보 마스터즈 시리즈는 서호성, 이진욱, 심성훈에게 2014 종합 1~3위의 기쁨을 안겼다. 이 클래스에 출전한 권봉이(서한-퍼플모터스포츠), 임민진, 전난희와 이토 리나(팀 챔피언스) 등 여성 드라이버들은 어느 해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이밖에 이원일, 여형해, 박동섭이 포르테쿵 챌린지 레이싱의 바통을 이어받은 K3쿵 챌린지 레이싱에서 1~3위를 기록했고, 아반떼 챌린지 레이싱에서는 이대준, 김재우, 원상연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2014 올해의 레이싱팀,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

KARA
racing
team

INDIGO
RACING TEAM

솔라이트 인디고레이싱팀의 2014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났다. 2014 코리아스피드 페스티벌(KSF) 제네시스 쿠페 10클래스, 20클래스의 종합 챔피언을 독식하며 발군의 활약을 펼쳤으며, 현재 활동중인 프로급 레이싱팀 가운데 최다승인 팀 통산 80승을 기록하며 레이싱팀 명가(名家)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다.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은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인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주)가 1997년 창단한 전통의 강호다. 최고의 기계닉과 드라이버로 구성된 탄탄한 팀워크를 중심으로 프로 자동차 경주대회에 출전하여 역대 80승을 돌파, 현역 활동팀 중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올 시즌 역시 종합 226점을 기록하며 KSF의 쉘 팀 챔피언십 상을 거머쥐었다.

인디고라는 이름은 짐작대로 미국의 포뮬러 시리즈인 인디 레이싱 리그의 간판 대회 '인디500'에서 이름을 따왔다.

최근 10년간 종목별 챔피언 타이틀만 6회를 차지하며 세계적 대회를 지향하는 팀 이름에 걸맞는 활약을 펼쳐왔다.

김의수, 조항우, 이재우, 최명길 등 당대 최고의 드라이버들이 이 팀을 거쳐갔을 뿐 아니라 신인 육성에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 시즌에도 카트 출신 기대주인 김재현과 서주원을 동시에 영입해 큰 성과를 거두는 등 현재 뿐 아니라 미래가 더 밝은 팀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인디고의 기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Q. 먼저 2014 KARA 모터스포츠인의 밤 올해의 오피셜상 수상을 축하 드립니다. 간략한 자기소개와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A. 2000년부터 국내에서 기술 오피셜로 활동했고 현재는 슈퍼레이스 기술위원장과 KARA 기술위원 직을 맡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F1 코리아 그랑프리 기술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2년부터는 기술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모터스포츠 선진국에서 좀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1년에 2~3차례 호주 및 영국에서 F1, WRC, BTCC, V8슈퍼카 등의 여러 경기에서 기술 오피셜로 참여했습니다. 아직은 배울 게 정말 많은데, 너무 일찍 상을 받게 된 건 아닌지 하는 마음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상을 받는 것이 정점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원동력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이 배우는 자세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Q. 오피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1999년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할 당시에 대전의 한 벤처기업에 취직하게 되어 연고가 없는 대전으로 혼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대전에서는 별달리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별로 없는지라 TV를 보다가 우연히 F1 경기를 보게 되었고, 계속해서 보다 보니 뭔가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저것 자료들을 인터넷으로 찾아 보다가 알게 된 분이 F3 코리아 슈퍼프리 1회 대회에서 기술 오피셜로 참여했고, 그 인연으로 저도 이듬해부터 오피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Q. 모터스포츠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모터스포츠가 자동차광들을 위한 마니아성이 강한 스포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와서 즐기는 스포츠이기도 하고, 휠체어를 타고 와서 관전하는 분들을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속도에 관한 인간의 열망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왔고, 그 극한에 있는 것이 모터스포츠겠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폭발적인 배기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터스포츠는 '스포츠'라는 것이 모터스포츠가 가진 매력이고, 자동차광이 아니어도 모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원동력입니다. 단순히 빨리 달리는 게 모터스포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레이스에서는 공격(압지르기)과 수비(블로킹)의 개념이 존재하고, 높은 클래스에서는 타이어 교체 시기나 급유와 같이 작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터스포츠는 흔히 드라이버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성이 강한 스포츠로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팀의 미케닉과 스테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팀 스포츠에 가깝습니다. 모터스포츠가 '스포츠'로서 가진 매력을 발견한다면 누구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Q. 현재 소속된 오피셜 활동 분야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A. 기술 오피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 오피셜은 차량과 드라이버의 장비에 탑재되어 있는 안전에 관련된 위험은 없는지, 차량이 경기규정과 기술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경기 중은 물론 경기 전후에도 검증하는 일을 합니다. 기술 오피셜은 경기규정과 기술규정 양쪽 모두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모터스포츠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항상 민감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잡음이 종종 생기곤 하므로 기술 오피셜은 많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규정이나 기술은 늘 바뀌고 발전하기 때문에 모든 오피셜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술 오피셜에게는 항상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공부하는 자세 역시 꼭 필요합니다.

Q. 오피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뜻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은?

A. 국내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마음 아픈 기억이지만 2001년 제주랙리는 오피셜 경력 중에서 가장 잊히지 않을 듯합니다. 경기 중 사고로 드라이버가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경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물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겨우 2년차 오피셜이었던 저는 기술 오피셜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모터스포츠에서 안전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되새기게 해 주는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가끔 차량검사 도중에 안전에 대한 이해 차이 때문에 선수 혹은 팀과 불편해질 때가 있지만 그 때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타협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2013년 F1 영국 그랑프리 기술 오피셜로 처음 실버스톤 서킷에 들어섰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 세계 모터스포츠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국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기억은 아마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Q. '모터스포츠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책에 이어 2014 KARA 규정집 제작에도 도움을 주셨어요,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하시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직업소개)

A.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워낙 범위가 넓어서... 예전에는 방송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요즘은 출판이나 번역 관련 일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 이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좀 늦게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모터스포츠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와 KARA 규정집 이외에도 모터스포츠에서는 수많은 보고서들이 오고 가며, 코리아 그랑프리 준비 과정에서 진행했던 오피셜 교육에서도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교재 등을 제작해야 하므로 글 쓰는 기술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Q. 오피셜로서 본인의 향후 목표가 있으시다면?

A. 일단 저 자신이 여러 모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듯합니다. 1년에 2~3차례 정도 해외 경기에 나가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보고 들으면서 배우는 게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혼자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동료들과 나누고 교육시키는 데 활용하고, 기술 오피셜 팀의 업무 수행이나 운영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오피셜의 전반의 교육과 훈련을 체계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Q. 국내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오피셜로 모터스포츠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오피셜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 점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역시 오피셜의 교육 및 훈련입니다. 오피셜은 단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심판원의 역할을 하므로 오피셜의 판단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ASN 주도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오피셜의 등급이나 직책 결정이 거의 경력에 의존하다 보니 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며, 현장에서 일종의 도제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오피셜이 기존의 인맥 위주로 모이기 쉽습니다. 교육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고 그 효과가 단기간 안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 경기가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미 모터스포츠 전반에는 오피셜의 질이 경기 운영의 질로 직결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하던 대로 오늘도'가 아닌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외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해주세요.

A. 아직은 배울 게 많은데 이런 상을 안겨주시니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고, 직책이 올라가면 스스로에게 자만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것에 안주하면서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늘 그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피셜이 되겠습니다.



Season's Greetings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partnership.
With you standing with us, we look forward to another dynamic and rewarding year.
Wishing you peace, joy and prosperity in 2015.

2014년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모터스포츠인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께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건승하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임직원 일동 올림

KARA notice

KARA 공식 웹사이트 개편 안내

KARA 공식 웹사이트가 새해 1월1일부터 새 단장 됩니다. 회원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 개편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은 정보를 담은 사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바일 웹사이트도 곧 오픈 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오피셜 대상 공인경기 참가 실적 별 기념품 제공

지난 9월~11월 KARA 온라인 회원 관리 시스템인 KISS(KARA Information Service System)를 통해 경기에 참가한 오피셜을 대상으로 참가 횟수에 따른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참여해주신 오피셜 분들께는 KARA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해주신 모든 오피셜 여러분, 감사합니다.

- ◎ 공인경기 15회 참가 오피셜 김민수, 김유진, 김햇살, 김희정, 오성욱, 정대준, 진현숙, 강성욱, 고희진, 양원웅, 조철민
- ◎ 공인경기 10회 참가 오피셜 박희우, 반병민, 손승일, 송원익, 신기성, 신동섭, 양원웅, 용재명, 윤연정, 장덕영, 전성수, 정대준, 조철민, 최근환, 최용석, 최정훈, 최태영, 한승백

회원사



National Events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 www.superrace.co.kr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 / www.ksfrace.com
엑스타 슈퍼챌린지 / www.superchallenge.co.kr
코리아카트챔피언십(KKC) / cafe.naver.com/2011ryc



KARA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KARA 뉴스레터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 원하는 소식이나 정보에 대한 의견뿐 만 아니라 자유로운 비평과 건의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편집이 이루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karapost@kara.or.kr



KARA 뉴스레터 통권 06호

발행인 변동식
발행처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20층

전화 02.424.2951 팩스 02.424.2953
공식 웹사이트 www.kara.or.kr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karamotorsports

